

2011. **6** vol.97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길 62 가톨릭회관 413호
tel 02.774.3488 fax 02.776.7879 e.mail obos@catholic.or.kr
발행인 김용태 편집 자원개발부 홍보팀

한마음한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창립 23주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요한 6,51)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창립기념일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성체성사의 정신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평화로운 세상이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꿈꾸는 미래상입니다.

지구촌의 빈곤이 사라지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천주교 NGO(비정부기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창립 2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다시 되새깁니다.

저도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본부, 10만 번째 장기기증 희망신청자 나와



▲ 10만 번째 장기기증 희망신청자 이수진씨

한마음한몸운동본부(본부장 김용태 신부)가 펼치고 있는 뇌사 시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989년 캠페인을 시작하지 22년 만의 일입니다. 본부는 이를 기념해 지난 5/6(금), 10만 번째 주인공을 초청해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부분부장 민경일 신부는 10만 번째 장기기증 희망신청자인 이수진(에스텔, 서울 신사동 성당)씨에게 등록증과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주변에 신장이나 간 이식을 받은 분들이 새 생명을 얻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장기기증을 신청했다.”며 “앞으로 장기기증을 이웃에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본부가 이 같은 아름다운 생명나눔의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8년 2월,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기증을 계기로 뇌사 시 장기기증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008년 말까지 20년 동안 3만 3,432명에 불과했던 누적 신청자 수가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인 2009년과 2010년



▲ 10만 번째 장기기증 희망신청자 이수진씨가 본부 부분부장 민경일 신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해 동안 6만 1,284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지난 4/21(목) 10만 명을 돌파하게 된 것입니다. 본부는 이러한 생명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작년 9월, 불교 등 다른 종교계 및 의료계와 공동으로 ‘한국 장기기증 네트워크’를 발족시켜 장기기증과 생명나눔 홍보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아픈 환자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또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나아가 국민들 사이에서 생명을 나누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기증 희망신청 문의 02.3789.3488 • 장기이식 대기자 돕기 후원 신한은행 327-05-023289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장기기증 등록을 원하는 경우 우편으로도 장기기증 안내책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 유가족에게도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살 유가족은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살자의 부모, 배우자, 친척, 친구 등을 말하며 영어로는 ‘survivor’, 즉 생존자라고 부를 만큼 큰 정신적인 혼란과 충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자살예방 지침서에는 ‘자살은 파급효과를 갖고 있어 한 명이 자살할 경우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5~10명’ 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200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살 사망자 수는 15,413명으로, 이는 매년 7만~14만 명의 자살 유가족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살 유가족은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이라는 후회와 죄책감, 자살을 둘러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상처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나 우울증 혹은 자살시도의 위험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살 유가족들이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오는 편지 망고꽃비 내리는 계절



▲ 앙코르와트를 방문한 반티프리업 학생들

아아.. 덥다. 한 달 간 한국의 겨울을 살고 돌아온 캄보디아는 건기의 하이 라이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다시 '외국인'이 되어 돌아온 나는, 침대를 차지한 벌레들에 놀라고 물어대는 모기에 뒤척였습니다. 오자마자 맞이한 '여성의 날', 방 정리도 못하고 여학생들과 함께 시엠립으로 떠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자꾸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나는 이곳으로 돌아왔을까?'

휠체어를 이용하는 12명을 포함한 40명의 여성이 함께 방문한 앙코르와트는 초입부터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두 힘을 보태어 휠체어를 올리고 내리며 나아갔지만, 유서 깊은 돌계단들은 위대했습니다. 결국 부조가

있는 사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풀밭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좋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몸을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이 안쓰러워서 휠체어에서 내려와 자신의 휠체어를 끌어올리는 학생들,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져버린 우리들이 좋아서, 이 사람들 때문에 돌아왔다는 걸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건기의 가운데, 가장 물이 부족한 이때에, 사람들은 더위를 견디며 우기가 시작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계절에도 아주 가끔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비를 '플리웅 프까 스와이', '망고꽃비'라고 부릅니다. 덥고 마른 때에 가장 달콤해지는 망고를 키우는 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반티프리업에 함께 살면서, 우리는 서로를 키우는 망고꽃비가 됩니다. 그저 그가 품고 있는 달콤함이 익는데 필요한 만큼. 이 계절, 망고는 매일 달콤해지고 있습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해외장기봉사단원 김소령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국NGO봉사단은?

지구촌 빈곤퇴치와 사회정의 증진을 위해 현지주민들의 역량강화와 현지 협력단체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를 파견하는 장기 봉사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본부는 지난 2004년부터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와 협력하여 'KOICA'가 지원하는 한국NGO봉사단을 선발해 파견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3개국 20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했습니다.

'2011년 한국NGO봉사단' 중 사회복지사 김소령(마르타, 34)씨와 디자이너 류진희(로사, 37)씨가 지난 3/6(일), 캄보디아 반티프리업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에 파견됐습니다. Jesuit Service Cambodia (JSC)가 운영하는 '반티프리업'은 장애인들이 직업기술을 익히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배운 기술을 가지고 작게라도 가게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장애인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집이나 우물, 화장실 등을 지어주거나 아주 적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반티프리업'의 '권리와 자립에 기반을 둔 자체장애인 자력화(Empowerment)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아시아 빈곤퇴치 후원 우리은행 1005-684-077777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에이즈 예방 캠페인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

에이즈 감염인과 술잔을 함께 사용하면 감염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염인의 땀이나 침 등 모든 체액에는 에이즈바이러스가 들어 있습니다. 혈액 1mL에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가 들어있는데 비해 침 1mL에는 약 5개 정도의 극소량만이 들어 있고 이 정도의 바이러스는 정상 면역상태의 우리 몸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으므로 술잔을 함께 사용한다고 해서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감염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에이즈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한국가톨릭레드리본 • 후원문의 상담 02.753.2037 • 감염인 상담 010.5108.2958

하루100원 모으기

51,237명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2011년 5월 31일 현재)

■ 자동이체신청 02)774-3488

■ 지로 7522277

■ 인터넷참여 <http://www.obos.or.kr>

■ ARS 060-700-1117

■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01

신한은행 512-03-004088

국민은행 083-01-0309-453

농협 386-01-015833

외환은행 061-22-03709-4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함께하는 사회사목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아름다운 혼인, 하나되는 나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가톨릭출판사와 함께 혼인성사를 통한 나눔을 진행합니다. 가톨릭출판사 마리아·요셉홀에서 혼인성사를 가지고자 하는 분들을 비롯하여, 눈부신 6월에 혼인성사를 앞두신 모든 신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자원개발팀 02.776.8810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청소년대상 자원봉사 기본교육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기본교육을 진행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장소 7/23(토) 09시~12시 가톨릭회관 426-1호
- 대상 중·고등학생
- 교육비 5천 원(증명사진 1매 차감)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http://www.esvc.or.kr>) 또는 유선접수(선착순 마감)
- 문의 02.727.2248

환경사목위원회

여주 남한강 생명·평화미사

생명의 강, 4대강을 되찾기 위한 생명·평화미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장소 6/20(월) 14시~17시, 여주 성당
- 주관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 주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 내용 생명의 강 사진전, 문화공연, 생명·평화미사
- 문의 02.727.2274

노인복지위원회

가톨릭 노인복지학교

“사례관리교육 - KOMI Care 중급과정” 실시

본 위원회에서는 가톨릭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가톨릭 노인복지학교 - KOMI Care 중급과정 & 가톨릭 사회복지영성과 영적 돌봄」교육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대상 KOMI Care 초급과정 이수자, KOMI Care 관련 지식을 기 습득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내용

회차	일정	강의명	교육내용	강사
1	6/16(목)	KOMI Care 중급과정	실제 사례를 적용한 KOMI 차트시스템을 작성, 수정, 보완과정을 통한 케어매니지먼트 방법 습득	김병순 소장 (KOMI&복지연구소)
2	6/23(목)			
3	6/30(목)			
4	7/7(목)			
5	7/14(목)			
6	7/21(목)	카리타스 영성과 영적 돌봄	가톨릭 사회복지 영성, 영적 돌봄에 대한 이해와 접근법	정성환 신부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장)

- 일시·장소 6/16~7/21 매주(목) 10시~17시, 가톨릭회관 426-1호
- 회비 7만원 (우리은행 1005-001-726909 노인복지위원회)
- 문의 02.727.2255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인복지위원회

생애 첫 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아기의 돌잔치·생일·특별한 날 비용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부한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아기는 아직 모릅니다. 왜 자신의 생일 사진이 남들과 다른지. 하지만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다른 시작을 열어준 부모님이 많이 고맙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 최용훈 후고

(2010.4.29생 父 최민규/ 母 김현옥),
365,000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정유현 프란치스코

(2010.3.29생 父 정윤중/ 母 이정은),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황지윤

(2010.3.5생 父 황상목/ 母 김현수),
6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은을 프란카

(2010.4.26생 父 이원희/ 母 조혜연),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동열 세례자 요한

(2008.9.13생 父 이태현/ 母 이선영),
100만원 (지구촌 청소년 교육사업지원)

● 양하은 요안나

(2010.5.26생 父 양춘식/ 母 김진경),
1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장유진

(2010.4.6생 父 장종희/ 母 마리아),
16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찬웅 이시돌

(2008.5.22생 父 김상기/ 母 이정은),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은총 트로이

(2010.9.30생 父 이지현/ 母 정진애),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